



돈가 하락에 따른 양돈장 생산비 절감 방안



김형린 대표
(주)맥스매직

1. 서론

현재 추진 중인 FTA, 저돈가-고비용에 의한 수익 악화와 자금난, 분뇨처리 곤란, 수입육(돈육, 미산쇠고기)의 물량 증대 및 대체 소비, 국산돈육 소비 부진, 유효한 농장인력의 부족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하여 사육의욕을 감소시켜 연말을 전후하여 '한계농장'의 도산이 속출할 것이다.

따라서 '1,000만두 양돈시대'는 이미 물거품이 되었고 우리가 최단시간내에 세계적인 생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자칫 '자금울 50% - 600만두'의 양돈 소국의 길에 접어들 것이다.

양돈업은 높은 기술 수준과 많은 자본이 소요되는 '자본 집약적인 지식 산업' 분야이다. 따라서 타농축산업에 비하여 '건전한 재무구조의 확보와 지식 정보의 축적 및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 건실한 재무구조를 유지하려면 매출액이 생산비보다 높거나, 생산성 향상(매출액 극대화)을 통한 비용 절감과 낭비적인 지출의 감축 절감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향후 사료가격을 위시한 제비용의 증가와 돼지가격의 본격적인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건전한 재무구조 확보를 위한 생산비 절감 방안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2. 양돈업 동향

현재 한국양돈은 질병 측면에서는 PRRS, 살모넬라증을 필두로 한 PRDC(복합호흡기감염증)와 PED, 관리측면에서는 인력문제(경영주 포함, 기술수준, 열의)와 분뇨처리문제가 생산성 향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금년도 전국의 평균 모돈회전율을 2.0, 복당 포유개시두수를 9.6두, 전국 평균

MSY(모돈당연간출하두수)를 14.4두로 가정할 경우, 한국양돈의 생후출하율은 75%에 불과하며 포유기간중 폐사율을 10%라 가정할 때, 이유 후

출하시까지 적어도 15%의 폐사가 발생되고 있다. 또한 분만율은 70% 정도에 머물고 있어 심각한 모돈생산성의 저하가 계속되고 있으며 비육돈

<표 1> 2007년 양돈 수익성 모델

200	모돈상시수	전년비 사료가 53.5원 인상		110	출하체중
215	총번식돈수	389.5	총사료 : 원/kg	404.9	비육사료/kg
1,050	번식/두/년	324.7	번식사료단가	334.2	출하사료/kg
7,500,000	월인건비(+주)	4,500,000	월총위생비	3.2	800
1,200,000	월에너지수도	1,800,000	기타(+정액비)	13	시설기구(억)
2007년 평균	전국	A	B	C	D
M/S/Y	14.0	16.0	18.0	20.0	22.0
월평균출하두수	233	267	300	333	367
1) 두당사료비	147,000	140,000	134,000	128,000	122,000
<비육사료/두>	120,352	116,675	113,501	109,323	105,146
출하일령(누적)	190	185	180	175	170
비육용kg/두	308	292	283	270	258
사료(원/kg)	390.8	399.6	401.8	404.9	408.3
<번식사료/두>	26,220	22,942	20,393	18,354	16,685
번식사료kg	80.8	70.7	62.8	56.5	51.4
2) 인건비/두	32,100	28,100	25,000	22,500	20,500
3) 약품대/두	19,300	16,900	15,000	13,500	12,300
4) 분뇨처리비	17,000	16,000	15,000	14,000	14,000
5) 기타	50,400	46,700	41,500	37,400	34,000
생산비/두	265,800	247,700	230,500	215,400	202,800
생체kg당	2,420	2,250	2,100	1,960	1,840
지육kg당	3,500	3,260	3,040	2,840	2,670
총년매출(천)	659,000	753,000	847,000	941,000	1,035,000
년간수익(천)	(85,200)	(39,600)	17,200	79,400	142,700
두당 수익	(30,400)	(12,400)	4,800	19,900	32,400
시 세		2,139	235,290	3,100	69.0%
		원/kg	원/두	지육가(서울)	실정산지육율
사료(원/kg)	364.9	385.0	387.8	391.0	394.4
총 사료효율	3.53	3.30	3.14	2.97	2.81
1) 고정비 비율	55%	53%	51%	49%	48%
2) 고정비/일	398	359	321	291	268
3) 고정비/모돈	2,036	2,096	2,106	2,122	2,148
4) 손익분기두수	17.7	17.7	17.3	16.8	16.5
5) 사료비/생산비	55%	57%	58%	59%	60%
6) 두당사료비(±)	22,000	23,000	22,000	22,000	20,000
7) 두당생산비(±)	32,500	28,300	25,800	28,800	23,200

군의 위축 및 성장지연이 가세하여 전국 양돈사료 효율을 3.5 이상으로 악화시켜 고곡물가로 치닫는 현실을 더욱 비판하게 한다.

질병 대응력과 번식장애의 개선보다는 모돈수의 증가에 따른 사육두수의 증가로, 금년도의 사료 총생산량은 전년대비 5.5%가 증가한 546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옥수수를 필두로 한 '바이오 에탄올발' 사료곡물 가격의 급등으로 금년도에만 3차례의 가격인상이 단행되었고 적어도 내년 1/4분기까지는 곡물가격의 인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최근 환율이 인상되어 한층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표 1〉은 모돈 200두 규모의 생산성(MSY)에 따른 생산비 모델이다. 연평균 지육가는 3,100원, 실정산율은 69%로, 인건비 중 경영주의 최소 가계지출 인출금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장별로 투자 및 비용 규모가 다름을 감안하기 바란다. 금년도 사료 kg당 단가는 전년보다 50원 이상 올라서 두당사료비는 전년보다 무려 2~2.2만원이나 인상되었고 분뇨처리비, 종돈 및 시설기계기구 감가상각비, 인건비, 약품방역 및 기타첨가비 등 제비용의 인상을 감안했을 때, 실질적인 두당 생산비는 30,000원 정도가 인상되었다. 전국 평균 성적(MSY 14두)의 농가는 지육 kg당 생산원가가 3,500원에 육박하여 두당 32,300원의 적자를 볼 것이며, 손익분기 MSY는 17.7두로 분석된다.

현재 MSY 18두 이상의 농가 비율이 10% 정도임을 감안할 때 실로 앞이 캄캄하다. 모돈 100두당 6억원의 투자를 가정한 경우, 연간투자수익율(ROA) 10%를 사업손속가치로 본다면 금년도의 경우, 'MSY 21.5두 농가만이 지육생산 원가 2,750원, 연간수익 1억 2천만원의 정상적인 사업 성과를 거둔다'고 평가된다. 이 외에도 대출자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 경영주의 씹씹이, 분뇨처리

비 등 실질적인 지출 내역에 따른 자금소요분을 고려한다면, 대부분의 농가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농협중앙회)나 사료회사들이 부실채권의 발생을 막기 위하여 전력투구할 것이므로 결국 금년 겨울은 도산과 폐업이 속출할 것이다.

3. 돼지가격 하락에 대비한 생산비 절감 전략

수익성 재고를 위해서는 규격돈 출하두수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생산성 위주로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즉 시설환경, 사양관리, 질병관리, 분뇨처리, 경영관리 등 복합적인 측면에서 전 생산공정에 걸쳐 합리적인 생산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비용 절감의 의미는 단순히 줄이는 지출을 줄이는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 어차피 지출해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선행 지출을 함으로써 수익이 유도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생산성이 개선되기만 한다면, 같은 돈을 지출하더라도 비용이 감소되는 '고정비용의 희석 효과'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양돈장의 재무구조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생산비 절감 전략을 제시한다.

가. 오로지 생산성 개선에 의한 수익 구조 개선을 목표로 하라

나. 부채를 최소화해서 금융비용부터 줄이고 재무제표를 관리하라

금전상 상환의무가 있는 차입자금인 부채는 1년 이내 현금상환하도록 되어 있는 유동부채와 지불기한이 1년을 넘는 고정부채로 분류되는데 연체

이자, 사채 등 악성부채의 단기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즉, 고돈가기에 잉여자금을 확보하여 규모 확대를 위한 시설투자보다는 양돈장의 재무구조 건전성을 위한 악성부채의 해소에 적극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양돈장들은 남의 돈(부채)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무책임한 경향이 농후하다. 결국 양돈장의 부채문제 최소화를 위해서는 잉여자금 확보를 통한 자금관리의 효율화로 수익기반의 안정화를 위한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가일층 노력이 필요하다. 향후 도래될 고난기에 저리 정부자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대출기관과의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재무제표를 잘 관리하여야만 한다.

다. 사료비를 절감하라

〈표 1〉의 5) 항목과 같이, **생산비중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60% 내외로 가장 크다.** 따라서

1) 사료구매 조건을 최적화하라.

양돈장의 대부분이 번식돈에 대한 기록관리와 자금의 입출금 관리는 하고 있지만, 계획적인 자금관리를 하지 않아서 외상사료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다. 따라서 결재를 중용당하고 수익적인 체중도 되기 전에 어쩔 수 없이 출하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합리적인 자금흐름 관리(Proper Cash Flow)’를 통하여 가능한 현금사료를 쓰되 불가피하게 외상을 쓸 경우, 이자율을 최대한 낮추되 회전기간을 가능한 줄여야 한다. 그리고 거래조건을 가장 유리하게 협상하라. 그리고 현재 농장의 kg당 사료단가를 점검해 나가라. kg당 사료단가는 농장별로 320~500원으로 천차만별이다.

2) 사료효율 악화 요인을 우선 제거하라.

이를 위하여 사료효율의 정확한 분석을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관리해 나가자.

특히 모돈군의 사료섭취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임신기에는 적게 포유기에는 많게 급여해야 모돈 두당 사료량을 줄일 수 있으며 비육돈군의 경우에는 식욕을 유지시켜 정상적인 섭취를 돕고 위축폐사율을 줄이는 것이 첩경이다. **자돈기의 문제보다 비육기의 성적악화는 곧 경영악화의 지름길로 통한다.**

- 모돈생산성 개선, 비육돈군의 질병 통제, 사료허실 제거, 급이와 급수의 체적화, 자질 개선농장

3) 급여 프로그램을 최적화하자.

같은 사료를 이용해도 급여프로그램에 따라 kg당 사료단가가 50원 정도는 쉽게 차이가 난다. 관리자들이 편의상 무조건 아래 단계의 고가사료를 사용하는 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그리고 프로그램 조정에 의한 구간별 성적 변이를 세밀하게 분석하라.

- 모돈으로 부터의 수직감염 최소화와 자돈기의 정밀사양을 통한 질병 통제
- 육성비육돈 사료의 적정 비율 유지, 암수분리 사육(사료효율 5.5% 개선)

라. 인건비를 절감하라

높은 생산성은 결국 인력으로부터 나온다. 인건비의 절감은 무조건 인력의 수를 감축하고 봉급을 깎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비효율적인 인건비 지출 인가를 점검하고 ‘생산성에 따른 수익대비 총체적인 인건비의 적정화(절감)’을 의미하는 것이다. 돼지는 관리자의 애정과 기술만큼 보답함을 명심

하자. 이를 위해서는 관리자에 대한 적절한 투자(교육, 인센티브, 복지)와 원활한 의사소통에 관심을 가져라.

마. 절대 써야할 것은 아끼지 말고 과감히 지출하라

양돈업 성공의 근간은 '산차관리와 모돈의 건강과 체형 관리'로부터 비롯된다. 어떤 이유로도 종돈 갱신을 소홀히 하지 말고 내 농장에 적합한 자질의 종돈갱신에는 기꺼이 돈을 써라. 다만 무작정 모돈수만 늘리지는 말고 생산효율로 상쇄하라. 또한 생산성에 핵심이 되는 시설 보완, 백신 및 방역 위생비 등 예방성 비용은 과감히 지출하라.

바. 경영주부터 근검절약의 모범을 보여라

전업규모 양돈장의 경영주는 모든 자산을 양돈장에 투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때문에 양돈장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자녀학비, 보험, 저축, 경조사비 등의 가계비 지출, 대출금에 대한 원금이나 이자 상환 등에 사용하고 남은 자금으로 양돈장을 운영하므로 여유자금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므로 평소에 분수에 맞는 지출을 행하고 근검절약 정신을 견지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여유자금(현금)을 확보하

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더불어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품행을 유지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종업원에게 주시하고 있으며 결국 경영주와 같은 사고와 행동방식을 택하게 된다.

4. 맺음말

향후 국내 양돈업은 유래없는 저돈가-고비용기를 맞아 혹독한 구조조정을 겪을 것이다. 결국 양돈장의 존폐는 '전문성 및 프로근성을 바탕으로 한 수익 창출력과 신용(재무구조) 관리'에 달렸다. 사육현실과 동떨어진 사고와 잦은 현장 이탈은 종업원과의 마찰을 초래하여 결국 생산성의 하락은 물론 실질제비용의 증가(손실)만을 야기시킬 것이다. 또한 검증된 신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적용하고 그 결과를 생산성에만 국한하지 말고 경영적으로도 수치화하기를 당부한다. 수익 개선을 위하여 신기술을 도입하고 시설현대화로 규모 확대를 도모했음지라도 원가절감 및 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에는 과잉투자에 의한 고비용 구조로 기존보다도 오히려 수익성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기록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경영관리를 하고, 그 최종 결과인 경영수익을 재평가하여 지속적으로 혁신을 도모하기 바란다. **양돈**

양돈농가 계도 슬로건 공모 입상작

맛도 좋고 몸에 좋은 으름품질 우리돈육